

## 성인에서 폐출혈을 동반한 IgA 신병증 1예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병리학교실\*

김영민 · 송민수 · 전진석 · 노현진 · 진소영\* · 한동철 · 이희발

**서 론** : IgA 신병증은 신장염을 일으키는 가장 많은 원인으로 대부분 무증상의 현미경적 혈뇨, 단백뇨 또는 상기도 감염이나 운동 후 발생한 육안적 혈뇨의 증상을 보인다. 폐출혈을 동반한 IgA 신병증은 외국에서 매우 드물게 보고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아직 보고되어 있지 않다. 저자들은 성인에서 폐출혈을 동반한 IgA 신병증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 29세 여자 환자가 3-4개월 전부터 시작된 하복부 통증으로 본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자궁근종을 진단 받고 근종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수술 당일부터 육안적 혈뇨와 객혈이 발생되어 내과에 의뢰되었다. 환자는 6개월 전부터 육안적 혈뇨와 객혈증세가 반복적으로 있었으나 정밀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지내왔으며 그 외에 특별한 병력은 없었다. 계통적 문진 상 안면 홍조나 관절통, 구강 궤양 등은 없었으며 흡연력은 없었다. 진찰 소견상 결막은 창백하였고 피부 병변은 없었으며 양측 폐야에서 수포음이 청진되었다. 혈액검사 상 백혈구 9100/ml, 혈색소 9.4 g/dl, 혈소판 163,000/ml이었으며 BUN 10 mg/dl, Cr 0.6 mg/dl이었고, 소변검사상 뇨단백 trace, 적혈구 many/HPF, 백혈구 음성, 적혈구 cast는 관찰되지 않았고, 24시간 요단백은 738 mg/day이었다. 면역 혈청검사서 HBs Ag, Anti-HCV, Anti-HIV, VDRL, Rheumatic factor, ANA, Anti-dsDNA, Anti Sm Ab, cryoglobulin, Anti-GBM Ab, ANCA, Anti-phospholipid Ab IgM/IgG는 모두 음성이었고, C3 62 mg/dl, C4 19 mg/dl, ASO 45 IU/ml, IgG/IgA/IgM 890/304/76 mg/dl로 C3가 약간 감소된 소견 외에는 모두 정상이었다. 단순 흉부 엑스선 촬영상 양측 폐하부에 다발성 음영이 관찰되어 폐출혈에 합당한 소견이었다. 육안적 혈뇨 발생 후 7일째 시행한 신장조직검사서 메산지움에 IgA와 C3가 침착 되어 있었고 메산지움세포의 증식이 관찰되었으며, 혈관염의 소견은 보이지 않아 IgA 신병증으로 진단하였다. 환자의 폐출혈과 육안적 혈뇨는 증상 발생 후 5일째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소실되었고, 현미경적 혈뇨는 계속 관찰되는 상태로 현재 외래 추적관찰 중이다.

**고찰 및 결론** : IgA 신병증과 동반된 폐출혈은 정확한 기전과 예후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면역 복합체에 의한 폐의 모세혈관염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면역억제제나 혈장교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저자들은 신장 기능의 악화 없이 자연 소실된 육안적 혈뇨와 폐출혈을 동반한 IgA 신병증 1예를 경험하여 보고하고자 한다.